

회원간 기술교류가 활발한곳

효은의 도시 수원. 옛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찾아 눈물을 쏟고 그 그리움이 가시지 않아 느릿느릿 애비가 누운 땅이 더이상 보이지 않을 세라 돌아 보며 넘었다는 지시대 고개. 그렇게 지어진 이름이 무척이나 정겹다. 그날 정조가 앉은 어가가 쉬엄쉬엄 넘어오던 고개가 지금은 넓게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되어 오가는 이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가르친다.

긴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를 맞으며 찾은 수원은 과천을 거쳐 서울에서는 지적이다. 경기도 도청소재지이며 날로 팽창하고 있는 도시이지만 같은 경기도에 위치한 서울과 인천의 위세에 눌려 한낱 위성도시 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수도권이라는 도시문화의 한 단면일 뿐, 수원은 나름의 전통과 역사를 지닌 채 성장하고 있다. 80년대 초에 20만명이었던 인구가 지금은 90만명에 다다른다는 것이 그 성장일로의 일면을 들여다 보게 한다.

1986년에 창립되어 올해로 만8년이된 수원시지부의 모습도 그와 다를 바가 없는 듯하다. 인구 20만명의 도시였던 시절 자신의 제과점이 수원에서 스물세번째로 허가를 받았다는 지부 한 이사의 말을 놓고 보면 현재 2백 20여 회원으로 뭉쳐있는 수원시지부와 수원제과업계의 위상이 어떠한가가 느껴진다.



최 봉 규 지부장



수원시지부는 이제 곧 본격화 될 도지회의 중심으로 임무를 수행키 위해 여념이 없다. 그동안 차분히 쌓아온 경륜이 이 일을 어렵지 않게 할 것이지만 새로운 시대를 위한 대비는 그것이 언제나 새로워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회원 상호간의 결속과 화합에 의한 발전의 모습들은 이제 당연한 결실에 가깝다. 이제부터는 보다 정련된 제도와 추진력이 요구되는 때이다. 수원지부는 이러한 측면에서 그 전망을 밝게 하는 것이다.

구역장제도 활용 행정효율 꾀해

수원시지부는 올해 최봉규 제5대지부장을 선임하여 앞으로 본격화 될 도지회시대를 준비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최지부장이 경기도지회장으로 인준을 받음과 동시에 수원시지부가 앞으로 경기도 각 지부를 이끌며 새롭게 등장하는 임무를 수행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보여 온 수원시지부의 조직력과 추진력이 이 일을 무난히 감당하리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의심할 바가 없지만 보다 큰 일에 대한 준비는 마땅히 해야 하는 법이라는 최봉규지부장과 임원진들의 각오가 미더움을 준다.

수원시지부는 20여 회원으로 구성되어 10개 구역으로 편성된 구역장제도가 단연 돋보이는 지부이다. 많은 지회 지부가 이 제도를 택하고 있지만 창립 첫째 부터 구역장제도를 통해 회원간의 유대와 행정적 효율을 기해왔던 수원지부로서는 이 제도가 원동력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반드시 구역장을 거친 사람을 이사에 임명토록 한다는 내규를 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구역장제도가 지부의 움직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각 구역장은 회원과 가장 밀착된 위치에서 지부의 정책들을 전달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구역장 회의를 통하여 그것을 집약, 월 1회 열리는 지부 이사회에서 대표자 격인 구역장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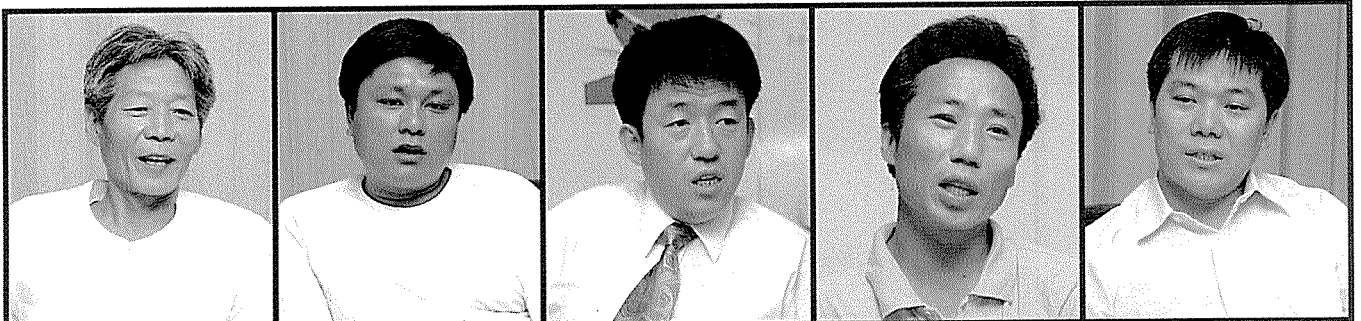
홍 대 식 고문

최 인 철 부지부장

장 명 환 부지부장

김 영 식 이사

엄 기 목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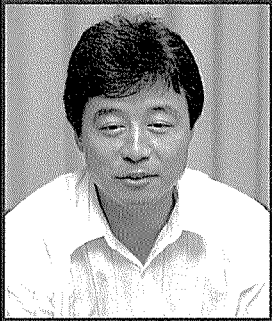
회장이 지부의 중요한 사안에 바탕이 되도록 한다. 말하자면 수원시지부의 모든 것은 가장 합리적인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 지는 것이다.

지부장, 부지부장, 감사, 이사로 구성된 지부의 임원진 외에 구역장제도와 함께 수원지부의 활력을 느끼게 하는 또 다른 '임원'이 있다면 그것은 기술분과위원장과 운영분과위원장이라는 두축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기술과 경영 양면이 제과업체가 동시에 지향해야 할 핵심적 요소라면 이들을 포용하고 또한 지부의 각종 사업에 탄력을 준다는 측면에서 이 분과위원장 활동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운영분과위원장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구역장회 회장과 함께 각 구역의 회원들과 접촉하여

지부 전체를 하나의 구심점으로 집약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지부가 격년으로 치루는 단합행사인 야유회, 체육대회를 도맡아 어김 없이 진행시키는 것도 이 운영분과위원장의 몫이다. 당연히 운영분과위원장은 지부의 손발로서 수원 제과업체의 다양한 정보의 흐름을 가능케하고 모든 움직임이 체계화 되도록 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기술분과위원장의 역할이 기술부분의 발전을 위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사실상 이도 '기술'이라는 정보의 교류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두 분과위원장의 존재는 수원시지부의 원동력이 회원간의 스스럼 없는 만남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김진광
기술분과위원장



김윤수
운영분과위원장



이태선
구역장회회장



허천웅 상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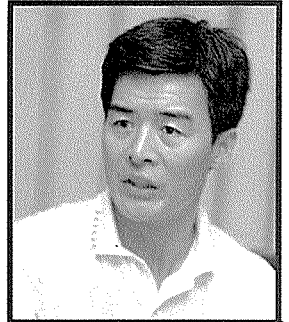
합리적인 제도가 지부의 원동력

현재 지부 사무실에 세미나장을 마련하고 있는 수원시지부는 연관업체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여 회원의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전체 회원을 조별로 평성하여 수시로 기술 정도를 가능함은 물론이고 각자의 점포에서 성공한 제품을 교환하여 함께 성장하는 가족을 일구어 가고 있는 점은 수원지부의 자부심이 되고 있다.

격년으로 개최하는 체육대회가 업계의 중진과 젊은층의 세대차를 없애고 회원 및 수원 제과업체 전체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되어 앞으로 더욱 단합행사를 자주 열기로 했으며 의욕을 보여주고 있는 수원지부는 한편 그동안 다소 재정적인 여유가 생겨 가까운 시일 안에 더 넓은 세미나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부가 단합된 가운데 힘이 축적되고 이 힘이 더욱 결속된 지부를 만들어 발전을 거듭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인근에 있는 '효행원'이라는 고아원을 찾아 주 2회 빵을 만들고 있다는 '강교 과우회', 정기적인 기술모임을 가지고 그 결과를 수원과업체의 기반이 되도록 한다는 '양과회' 등의 모임과 수원농공의 식품가공과 학생을 수용하여 후진 양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한 회원 업체에 대한 얘기들은 수원지부 요소 요소에 장래를 위한 씨앗이 차분히 자라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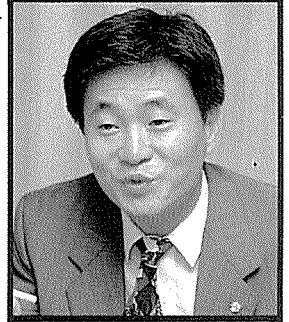
황재완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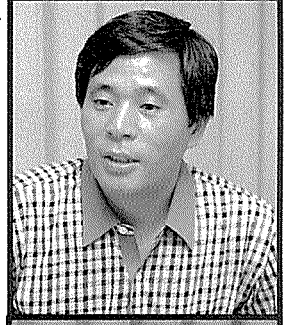
조계중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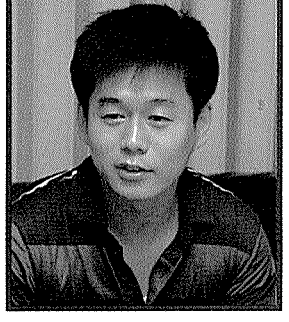
공병운 이사



김영철 이사



이성용 감사



그동안에도 가까운 이웃 지부와 교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수원지부가 이제 경기도 제과업체의 선두에서 이루어내어야 할 일들은 많다. 그러나 작은일에서 부터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 결실을 맺어 왔던 이곳의 경륜이 그 앞날을 밝게 하고 있다. (글 김희득) 